

사랑하는 수녀님들께,

총장으로서 나의 직무를 시작하는 첫 시기에, 모든 수녀님들을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의 망토 아래에 놓고 싶습니다. 모든 사람을 선한 목자 예수님께로 데려가시는 성모님께 우리들의 삶과 성소와 사명을 의탁합니다. 왜냐하면, 우리가 성모님처럼 모든 관계를 자유롭고 겸손한 선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우리수도가족의 창립 80 주년을 맞이 하면서 바오로가족의 태중에서 우리의 탄생을 기억합니다. *“ 바오로가족에게 주어진 이러한 부는 성체이신 예수님의 활동과 빛을 통하여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직무를 순명으로 완수함으로써 다른 부처럼 다가 왔고 성숙되어 갔다. [...]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직무에 접하면서 사목 경험을 쌓았다. “가서 (복음을)선포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.” 는 말씀을 그는 한층 더 생생하게 느꼈다. 사목자들을 위한 여성 협력자들, 곧 ‘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녀들을 양성시키기로 생각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다.’(AD 82)*

성삼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보호합니다. 마리아를 바오로가족 모두에게 알리신 복자 알베리오네께 감사드립니다. *“마리아는 이중의 예고를 받으셨다.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신적 모성에 대한 예고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관련된 보편적 모성에 대한 예고다. 그 어느 것도 이 보잘것없고 교만에 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부를 줄 수 없다.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은총을 주셨다. 세기를 통하여 그분을 끊임없이 주고 계시다. 은총의 보편적 중개자시고, 이러한 직무 안에서 우리의 어머니시다. (...)” (AD 182).*

선한 목자 어머니 마리아님, 성령 안에서 사목적 모성을 산 예언적 선물을 저희에게 중재해주소서.

여러분 모두에게 즐거운 축일이 되시길 빕니다!

**아민따 사르미엔토 뿌엔떼스 수녀
총 장**

2017 년 10 월 7 일, 로마
목주 기도의 동정 마리아 기념일